

대만의 팬 텍스타일 페어

- 에코 대응 소재의 신상품 등 발표

대만의 방척회(紡拓會)는 2009년 11월 4 ~ 5일의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2009 팬 텍스타일 페어(2009 Pan Textile Fair)를 개최하였다.

매년 열리고 있는 이 전시회에, 이번에는 실 가공 메이커를 비롯하여 직물, 니트, 액세서리(accessory : 裝飾品) 메이커까지 18개사 · 단체(18個社 · 團體)가 참가하였다. 텍스타일을 중심으로 에코 대응(eco 對應)이나 고기능을 부가(附加 : 덧붙임)한 신상품을 관람자에게 어필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에코 대응 소재(eco 對應 素材)의 신상품이 많이 출품된 것이 특징 중의 하나이다. 화우 방직(和友 紡織)은 코코넛(coconut)의 찌꺼기를 활용한 섬유 ‘코콜’로 환경에 적합한 소재를 어필하였다.

미쓰코시(三越) 방직 공업은 ‘텐셀 데님(Tencel denim)’을 발표하였다. 텐셀 100%뿐만 아니라 텐셀에 마(麻) 30% 혼방(混紡)이나 면 55% 혼방(混紡) 소재도 전시하였다. 이 회사의 부스(booth)에는 렌징사(Lenzing社) 관계자도 방문하였다.

불황의 영향을 받아 일본의 섬유 시장이 활기를 잃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 소재를 다시 살펴보려는 움직임도 커져서 이번 전시회에서는 상사나 수입업자 등을 중심으로 이틀간에 약 500개 조(組)가 다녀감으로써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